

이슈 브리프 | 2호

스타트업 창업가 분석

: 90년대생이 왔다



스타트업 창업가 분석: 90년대생이 왔다

목 차

- I. 서론
- II. 집단 특성의 차이
- III. 결론 및 시사점
- IV. 참고 문헌

키워드 90년대생, 스타트업, 창업가, 대학 창업 지원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소위 90년대생은 기존 세대와는 다른 사고와 생활 방식을 지향한다. 90년대생이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주체로 부상하면서 이들이 지닌 특성과 영향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와 관련하여 90년대생이 과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을까? 이슈브리프 2호에서는 스타트업 창업가 중에서도 90년대생들에 주목하여 이들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지니는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 국민대학교 혁신기업연구센터 연구팀은 '90년대생'의 성장한 배경의 차이점에 주목하고, '2021년 스타트업 창업가 지도'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90년대생'과 '비90년대생' 창업가의 개인 및 기업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2. 연구 대상

- 외부 투자 유치(2017.1.1.~2021.9.30.)에 성공한 사업성을 인정받은 스타트업 178개 사의 창업가 179명
- 창업가의 현재 연령 기준으로 '90년대생 창업가(80개 사, 80명)'와 '비90년대생 창업가(98개 사, 99명)'¹로 집단을 구분하였고, 출신 대학

61개교를 중심으로 국내 대학의 창업 지원 현황(2016-2020)을 분석하였다.

3. 데이터 수집

- 창업가 및 기업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협회, 인터넷 등기소, 더브이씨, 혁신의 숲,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통하여 기초 정보를 수집하였다.

<표 1> 활용 변수 설명 1

구분	변수	내용
개인	성별	남, 여
	연령	(현재연도-출생연도)+1
	창업 연령	창업 당시 연령
	학력	학사, 석사, 박사, 기타(휴학, 재학 등)
	전공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BMES(Business Management, Economic, Social Science)
	경력	이전 취·창업 경력, 한 직장에서의 경력 유지 기간
학교	유형 및 지역	학교 종류, 설립 주체, 지역
	인프라	창업 공간(m ²), 지원액, 창업 전담 인력, 창업교육 전담 조직 현황,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구축 현황

¹ 1개 사는 공동창업

구분	변수	내용		
	교육	창업강좌 현황, 비정규 교과 현황 (창업 동아리 현황, 창업 경진 대회, 창업 캠프)		
	성과	창업가, 창업기업, 창업기업 고용 인원 수, 창업기업 매출액		
기업	설립연도	기업 설립연도, 업력		
	업종	한국 표준산업분류 제 10차 기준 (A. 농업, 임업 및 어업~U. 국제 및 외국 기관)		
	기업 유형	플랫폼, 비플랫폼		
	비즈니스 유형	구독/멤버십, 연구/분석, 유통, 육성, 제조/공급, 중개, 지원, 가맹, 대여, 예약, 추천 등		
	서비스 분야	이커머스, 금융, 반려동물/웰니스, 모빌 리티, 교육, 물류/유통, 여행 레저, 바이 오/헬스케어,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광고 /마케팅, 푸드/배달,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솔루션, 공간 공유, 전문 서비스 등		
	서비스 기술	검색, 결제, 광고 네트워크, 광학, 로봇,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 블로그, 블록 체인, 사물인터넷/센서, 소셜 네트워 크, 연구개발, 음악/영상 스트리밍, 이미지/영상 제작 등		
투자	투자 실적	투자자 국적, 총 투자유치건수, 총 투 자자수, 총 투자유치금액, 후속 투자 유치시 소요 기간		
	투자 단계	라운드	투자 금액	기업 가치
		초기	Seed	수천 만~수억원, ~40억 원
			Pre-A	5~15억 원, 40~100억 원
		중기	Series A	20~40억 원, 100~250억 원
			Series B	50~150억 원, 250~750억 원
		후기	Series C	수백억 원, 750~1,500억 원
Series D, E, F/ Pre IPO	수백억~1,000억 원 이상, 수천억 원 이상			

* 개인 및 기업 정보는 '21년 9월 말 기준이며, 투자 정보는 가장 최근 개정된 자료임

** 기업 분류에 관한 정보는 '폴리네 리포트(2022-1호)'를 참고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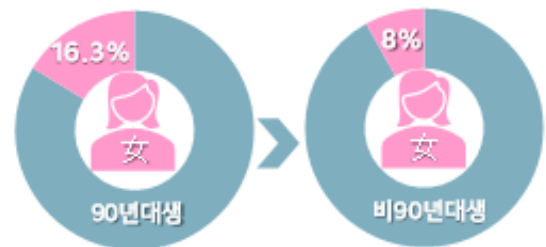
*** 투자 단계 정보는 ICT분야 스타트업 기준으로, 이택경 외(2020: 64-68)를 참고하였고, 기업 가치는 투자유치 이후의 가치를 의미함

II. 집단 특성의 차이

1. 개인 특성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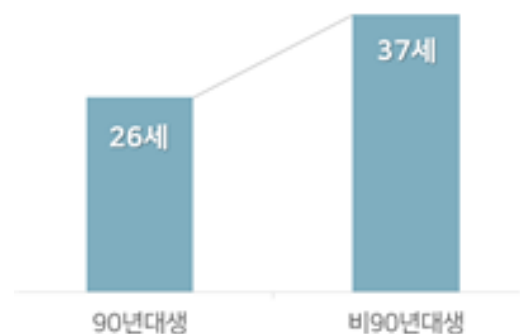
- 90년대생 창업가 80명 중 남성은 67명(83.7%), 여성은 13명(16.3%)으로 남성의 비중이 약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비90년대생 창업가 99명 중 남성은 91명(92%), 여성은 8명(8%)으로 남성의 비중이 약 11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 창업가 비중은 90년대생 창업가(16.3%)가 비90년대생 여성 창업가(8%)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여성 창업가 비중 차이

■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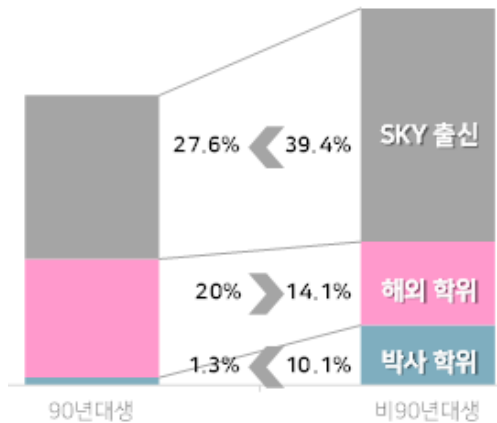
- 90년대생 창업가의 연령은 최소 24~33세로 평균 31세로 나타났고, 32세(19명, 23.8%), 30=33세(18명, 22.5%), 31세(8명, 10%)순으로 많았다.
- 비90년대생 창업가의 연령은 최소 34~60세로 평균 42세로 나타났고, 38세(11명, 11.1%), 34=39=40=41세(8명, 8.1%), 36=42세(7명, 7.1%)순으로 많았다.
- 90년대생 창업가의 평균 창업 연령은 26세였고, 비90년대생 창업가의 평균 연령은 37세로 나타났다.



[그림 2] 창업 연령 차이

■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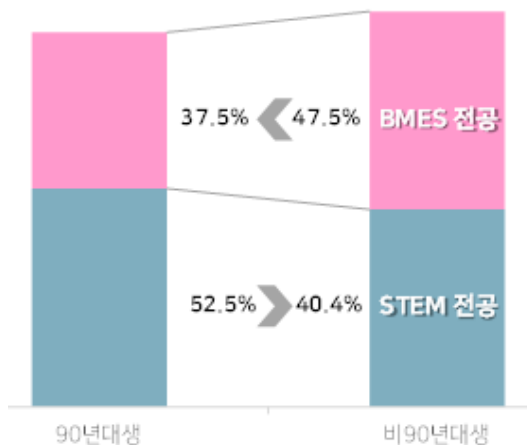
- 전체 창업가 모두 최종 학력은 학사가 가장 많았으나, 박사 학위 비중은 비90년대생 창업가가 약 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창업가 모두 최종 학위 국가는 국내 수도권 비중이 가장 높았고, 해외 학위소지자의 비중은 90년대생이 5.9%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창업가 모두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출신이 가장 많았고, 비90년대생 창업가 중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비중이 11.8%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학력 비중 차이

■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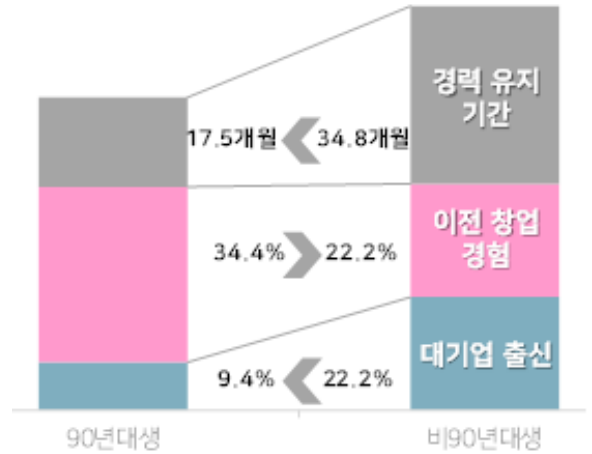
- 90년대생 창업가는 STEM² 전공(42명, 52.5%), BMES³ 전공(30명, 37.5%)인 반면, 비90년대생 창업가는 STEM 전공(40명, 40.4%), BMES 전공(47명, 47.5%)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전공 비중 차이

■ 경력

- 90년대생 창업가는 비90년대생 창업가에 비해 대기업 출신 비중은 12.8%p 적고, 이전 직장에서의 경력 유지 기간이 17.3개월 낮은 반면, 창업 경험은 12.2%p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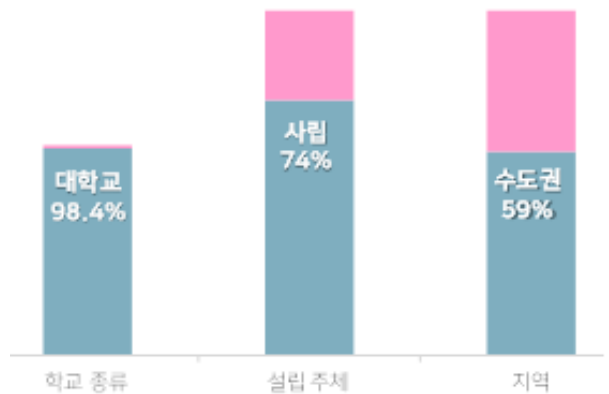


[그림 5] 경력 차이

2. 학교 특성

■ 유형 및 지역

- 국내 출신 대학 61개교는 1개교를 제외하고 모두 4년제 대학으로 사립의 비중이 약 74%를 차지하였다.
- 지역별로 수도권의 비중이 약 59%를 차지하였고, 서울(24개교, 39.3%), 경기(10개교, 16.4%), 대전=부산(5개교, 8.2%)순으로 많았다.



[그림 6] 학교 유형 및 지역

²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

³ BMES(Business Management, Economic, Social Science)

3. 기업 특성

■ 기업 및 서비스 유형

- 전체 창업 기업은 정보통신업종이 약 60% 이상으로 플랫폼 기업은 약 54.8%를 차지하였다.
- 지원, 중개, 제조/공급 비즈니스 유형이 가장 많았고, 온라인 서비스는 62.6%, O2O서비스는 22.7%를 차지하였다.
- 90년대 창업가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콘텐츠 제공 분야가 가장 많은 것에 비해 비90년대생 창업가는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한 바이오/의료 서비스 제공 분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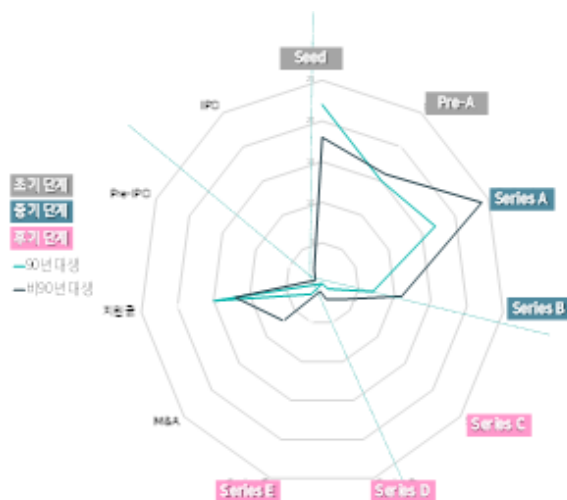
4. 투자 특성

■ 투자 실적

- 전체 창업가의 투자받은 국적은 한국이 약 80%, 미국이 약 13% 비중을 차지하였고, 총 투자유치건수는 평균 3건이며, 1년 이내 후속 투자유치를 성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90년대생 창업가가 받은 총 투자유치금액은 평균 109억 7백만 원, 비90년대생 창업가는 평균 381억 원으로 약 3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투자 단계

- 전체 창업가의 업력 평균은 약 4.5년으로 90년대생 창업가와 비90년대생 창업가는 비슷한 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90년대생 창업가가 현 투자라운드별 초기 단계 기업이 많은 반면, 비90년대생 창업가는 중기 단계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투자라운드 현황

III. 결론 및 시사점

■ 여성 창업가의 점진적인 성장을 위한 움직임

- 90년대생 창업가 중 여성의 비중은 비90년대생 창업가에 비해 약 2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성장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90년대생 창업가에서도 여전히 남성의 비중이 약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경제 활동 촉진, 여성 벤처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과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청년이 주도하는 창업 생태계

- 90년대생 창업가는 비90년대생 창업가에 비해 직장 경험이 적은 반면, 이전 창업 경험은 12.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에 비해 비약적인 성과를 달성한 뉴닉, 탈잉, 슈퍼브에 이아이, 리플라 등 90년대생 스타트업 대표들은 이전 사회 경험 없이 창업에 도전하여 큰 성공을 달성하였다.
- 이는 금융위기와 경제 불황의 시대적 배경 속 치열한 경쟁을 통한 청소년기의 성장 배경과 연이은 팬데믹 상황으로 높아진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에 기인한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또한, 일자리 부족에 따른 시대적 상황에서 정부와 대학에서의 창업을 권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정부 차원에서의 대학 창업 지원 재정 예산 규모는 매년 증액되어 교비 학생 창업 지원액에 비해 약 6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의 확보로 대학은 학생창업 전용 공간의 확대, 창업 과목 개설 증대 및 창업 관련 활동에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 및 다양성 있는 확대된 범위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 휴학제, 창업 대체 학점 인정제도의 본격화를 통한 적극적인 학생창업을 지원 중에 있다. 대학의 창업 교육 지원액 규모는 2018년에는 전년 대비 교비는 약 765배, 사업비는 약 948배 이상 크게 증액되어 학생 창업 역량 제고 및 육성, 성장 기회와 발판 마련 및 환경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과 집중을 기울이는 것을 알 수 있다.

■ 인재 집중화 경향

- 전체 창업가 출신 대학의 수도권 비중은 약 59%로 서울 지역이 39.3%로 가장 많았고, 특히,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출신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 세 학교의 창업 인프라 측면에서 살펴보면, 창업 공간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서울대의 경우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창업 공간 및 창업 교육 전담 교직원수도 증가하고 있었다.
- 정부 학생 지원 창업 지원액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창업 교육 지원액 예산 규모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고려대의 경우 창업 교육 지원액 예산 규모는 2016년부터 증가하여 2020년에 약 8배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측면에서 61개 대학의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교내보다 교외 창업 기업 수가 증가하고, 고용 인원수와 매출액도 2016년도 이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정부 차원에서의 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재정적 지원 혜택과 대학에서의 양질의 교육으로 인한 긍정적 영향의 결실로도 볼 수 있다.
- 연세대는 인프라, 교육 측면에서 모두 특정 항목의 증감 변동 없이 전반적인 항목에 대한 교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고, 추진 회차에 비해 학생들의 높은 참여도도 하나의 특징으로 보여졌다.
-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살펴보면, 세 개 학교 모두 61개 대학의 창업 지원 평균 현황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나, 창업 교육 커리큘럼과 교육 제공자의 우수성, 학교와 학생의 창업에 대한 열의와 진정성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데 중요한 요인이 됨을 짐작해볼 수 있다.

■ STEM 전공이 강세

- 전체 창업가 중 STEM 전공자는 46.5%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90년대생 창업가가 12.1%p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창업가의 기업은 정보통신업종이 약 60% 이상으로 플랫폼 기업은 약 54.8%를 차지하였고, 약 80% 이상은 온라인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분야와 기술 면에 있어서는 90년대생과 비90년대생 창업가의 차이가 보여졌는데, 90년대 창업가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콘텐츠 제공 분야가 가장 많은 반면, 비90년대생 창업가는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한 바이오/의료 서비스 제공 분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동일한 업종의 플랫폼 기업을 운영하지만, 서비스 분야와 접목 기술의 차이를 고려해볼 때, 90년대생 창업가들은 불확실성은 높지만, 창

의적 도전을 토대로 한 새로운 경험을 중시하고,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편리성과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 이전 경력

- 비90년대생 창업가는 90년대생 창업가에 비해 대기업 입사 경험자가 12.8%p 더 많았고, 창업 이전 경력을 보유하지 못한 비중도 32.7%p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현 창업 이전의 충분한 사회 경험을 하였고, 한 직장에서의 경력 유지 기간도 17.3개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투자 유지 현황

- 창업기업이 투자받은 투자자의 국적은 한국이 약 80%, 미국이 약 13% 비중으로 나타났다. 총 투자유치건수는 평균 3건이며, 1년 이내 후속 투자유치를 성사시키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90년대생 창업가에 비해 비90년대생 창업가의 총 투자유치금액은 약 3배 이상 높은 차이를 보였다.

■ 시사점

- 90년대생 창업가들은 비90년대생 창업가에 비하여 STEM전공이 과반 이상으로 높고, 4년제 대학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90년대생 여성 창업가 또한 비90년대생 여성 창업가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90년대생 창업가들의 특성이 뚜렷히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참고 문헌

- 국민대학교 혁신기업연구센터(2022). 플리네 리포트, 제2022-1호.
- 이택경, 한국벤처투자, 스타트업얼라이언스. (2020). 스타트업 투자유치 전략. NAMU.
- 더브이씨 홈페이지(<https://thevc.kr>).
-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https://academyinfo.go.kr>).
- 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https://venture.or.kr>).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s://www.mss.go.kr>).
- 혁신의 숲 홈페이지(<https://www.innoforest.co.kr>).

주 의

이 보고서는 국민대 혁신기업연구센터에서 수행한 리포트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국민대 혁신기업연구센터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발행일 | 2022년 3월 24일

발행처 | 국민대학교 혁신기업연구센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1길 10 소석빌딩 5층

기획 및 편집 | 국민대학교 혁신기업연구센터 연구팀

연구본부장 김주희

연구원 방미현

문의처 | Tel: 02-6242-8114 / 8115